

마음 열면 劍이 보입니다

심검도



외국인 제자들의 수련 모습.

“물 뜨는 그릇이 달라도 그 물맛은 같아요. 깨우침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가는 문이 다르지만 깨우침의 내용은 같죠. 바른 깨우침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심검도(心劍道)’입니다.”

검법(33단), 신법(10단), 호신술(10단), 장봉술(5단), 단봉술(5단), 쌍검(5단)으로 구성된 종합 불교 무술 심검도. 심검도의 창시자인 김창식(60·법명 원광) 세계심검도협회 총재는 1974년 승산 스님(화계사 조실)의 초청으로 도미한 이래 30년간 전 세계에 심검도를 전파해온 무술인이다.

2004년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존 케리 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이 김 총재와의 인연으로 “한국 전통사찰을 방문하

고 싶다”고 말한 것이 알려져 더욱 유명해진 김 총재. 그는 케리 상원의원의 아들인 존 하인즈 5세를 보스턴 유니버시티 시절 심검도에 입문시켜 현재 8단의 고수로 키워냈다.

아직 쌀쌀한 겨울의 흔적이 남아있는 보스턴 심광사로 김창식 총재를 찾아간 것은 3월 13일 오후. 심광사는 세계심검도협회 본부로서 81년 이후 2만 명에 달하는 미국인 심검도 수행자를 배출해 낸 곳이다. 자그만 체구지만 마중 나온 김 총재의 몸에서 무술인 특유의 예리한 시선과 단란한 긴장감이 느껴진다.

심검도의 기본이 무엇이라고 묻자,

김 총재는 바른 검법을 배우려면 몸의 고집에 따라 자기편한대로 생각하려는 아집을 떨쳐버릴 것을 강조했다. 검법을 반복해서 익히다보면 몸의 고집이 떨어져 나감은 물론 스스로 바른 길을 찾게 되는데, 그것이 검의 길, 즉 ‘검도(劍道)’가 된다는 말이다. 심검도에서는 마음 수련도 중요하다. “심검도의 특징은 몸뿐 아니라 마음과 생각도 바르게 하는 거예요. 마음과 행동이 흩어져 있으면 일도 할 수 없어요. 그것을 한데 모아 올바른 집중하면 행동이 일어나게 돼요. 바르면 검은 ‘활인검(活人劍)’이 되고, 잘못되면 바로 ‘살인검(殺人劍)’이죠.”

김 총재의 이야기는 깨우침이란 주제로 옮겨갔다. 김 총재에게 깨우침이란 ‘평상심이 도’란 말과 통하는 것이다.

“검으로 통했던, 밥 먹다 통했던, 참선으로 깨달았든 도를 통한 것은 하나예요. 도를 통한 것은 그 사람의 일거수 일투족을 보면 나타나요. 금방 사용한 수건을 아무렇게나 버려 두는 것, 남에게 틀린 말을 했다면 도를 통했다는 것은 거짓이 돼요. 행동이아말로 진리가 드러난 것이고 바른 행동의 정수가 심검도의 330가지 검법이 된 거죠.”

김 총재가 이처럼 평상심을 강조하는 무술인이 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바로 한국 불교의 고승인 승산 스님(화계사 조실)을 은사로 모시고 8년간 공부했던 지중환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열 다섯 살 때 화계사에 갔어요. 천 구들과 노는데 한 스님이 나한테 배우면 훌륭한 무술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은 무술을 잘 하시냐고 물었죠. 스님은 딱,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도 배우고 싶었어요. 뒤에 흘린 것 같았죠.” 김 총재는 그 자리에서 무술도 모르는 스승에게 무술을 배우겠다는 결심을 했다.

심검도를 창시한 것은 행자 생활을 마친 65년 삼각산 토굴에서 100일 기도를 하면서다. 김 총재는 기도를 점검하던 승산 스님의 ‘벽에 걸린 검을 잘라 보라’는 가르침을 화두 삼아 수행했다. “쇠로 철검을 어떻게 자를까 고민했죠.” 김 총재는 기도 중에 답을 구했다. “악! 이 소리를 자를 수 있습니까? 소리를 자른다면 빛과 시간도 자르겠죠. 철검 정도야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많은 검법과 신법, 쌍검술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김 총재는 자신을 검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검법으로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검이 마음이고 마음이 검이죠. 마음을 잘못 쓰면 사람이 다치잖아요. 그래서 마음도 같이 가르쳐요. 남을 이쁘게 봐주고 도움을 주어야 사람이 살리는 검이 되는 거죠.”

김 총재는 70년 처음 심검도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해동검도 총재로 유명한 달턴씨 나한일 씨 등이 김 총재의 제자이다. 71년에는 제1 홍법원을 열어 포교하던 승산 스님을 따라 일본에서 심검도를 알리기 시작했고 74년 미국에



“무술도 모르는 승산 스님으로부터 ‘마음 쓰는 검법’을 배웠다”는 김창식 총재.

불교 무예를 전파하기 위해 건너왔다.

현재 김 총재가 총 33단으로 심검도 최고 고수이고 그 다음 고수는 심광사 주지 매리 스타하우스이다. 켄잡으로 유명한 식료품 회사 하인즈 가문의 상속자인 하인즈 씨는 심검도협회 비서실장으로 활약하면서 현재 심검도를 전파하기 위해 펜실베이니아에 불교 고등학교인 티니컴(Tinicum Art and Science)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한국, 미국, 이탈리아, 폴란드 지회로 구성된 세계심검도 협회는 전세계에 50여 개의 도장을 두고 있다. 김 총재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불교 무술인 심검도를 알리고 싶다”며 “불교와 무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특히 한국인 불자 학생이 많이 찾아와서 심검도를 배우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617-787-1506 www.shingwangs.org.

미국 보스턴=김유신 특파원



승산스님 초청 도미 30년간 심검도 전파
몸으로 익히고 아집 떨쳐버려야 ‘劍道’
심신 바르고 일치할때 ‘활인검(活人劍)’
正行의 정수 330가지 검법으로 표현
존케리 상원의원, 하인즈 가문 등이 수련

劍

현대불교신문 창간 10주년 2004 부다피아 SUMMER CAMP

미국 하와이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수 및 문화체험

현대불교신문사는 창간10주년을 맞아, 100년전 이민의 첫발을 내디딘 미국 하와이에서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수 및 역사, 문화체험캠프를 개최합니다. 2004 부다피아 여름 캠프는 지상의 낙원이라 일컬어지는 미국 하와이에서 전문적인 어학교육과 함께 역사 및 문화체험으로 진행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영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필요성을 깨닫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폴리네시아 및 미국 현지인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넓은 세계를 배움으로서 어린이 청소년들이 높은 안목을 갖춘 세계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고자 합니다.

- 참가대상: 초·중·고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기간: 7월 28일 ~ 8월 17일 (20박 21일)
- 참가비: 250만원 (여권·비자수수료 별도)
- 정 원: 선착순 50명
- 참가신청: 3월 15일 ~ 5월 10일까지 (※미국 비자신청은 별도문의 바람)
- 장소: 하와이 한인문화원
- 주최: 현대불교신문·하와이 무량사
- 주관: 하와이 스타드러대학교 부설 영어교육원
- 후원: 조계종교포교원 진각종통리원 (재)보덕학회
- 문의: 현대불교신문 02) 722-4162~3, 016-292-1987
- 참가비 입금통장: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 준비물: 여권, 미국 비자, 학생증, 필기 도구, 카메라와 필름, 속옷 3~4벌, 셔츠와 바지 2~3벌, 모자와 선글라스, 수영복과 샌들, 비옷, 수건과 비누, 자외선 차단크림, 작은가방

※ 참가학생 부모님의 경우 하와이 사찰에서 공동생활을 전제로 참가가 가능합니다. 참가비는 관광비용 포함해 1주 180만원, 2주 200만원, 3주 220만원입니다.

□ 프로그램 일정표

일 정	시 간	프 로 그 램
7월 28일(수)	오전 8시	영어학교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원어민 선생님들과 영어전용)
7월 29일(목)	09시~16시	영어교육, 휴식
7월 30일(금)	09시~16시	한인 이민의 탐사원 사탕수수농장, 자연박물관 관람
7월 31일(토)	10시~12시	와이키키 해변 수영, 휴식
8월 1일(일)	10시~12시	하와이 친구들과 대화, 휴식
8월 2일(월)	09시~16시	영어교육, 휴식
8월 3일(화)	09시~16시	카탈리만다린호텔 돌고래쇼 및 코닥 홀라쇼 체험
8월 4일(수)	09시~16시	영어교육, 휴식
8월 5일(목)	09시~16시	하와이 폴리네시아민속촌 및 공연관람
8월 6일(금)	09시~16시	영어교육, 휴식
8월 7일(토)	09시~12시	와이키키 해변 수영, 휴식
8월 8일(일)	10시~12시	하와이 친구들과 대화, 휴식
8월 9일(월)	09시~16시	진주만 방문, 다이아몬드 헤드 등반
8월 10일(화)	09시~16시	영어교육, 휴식
8월 11일(수)	09시~16시	하와이왕국 이올리나 궁전 탐방 및 퍼레이드 관람
8월 12일(목)	09시~16시	영어교육, 휴식
8월 13일(금)	09시~16시	바다 물고기와 함께 하노우마베에서 수영
8월 14일(토)	09시~16시	영어학교 졸업식, 휴식
8월 15일(일)	10시~12시	하와이 친구들과 대화
8월 16일(월)	09시~18시	화산의 신비를 눈앞에서 백아일랜드 화산성 탐방
8월 17일(화)	10시~	출발